

환경문제에 대한 위해도와 정부 규제에 대한 인식

Risk Perception and need to regulate on environmental issues

신동천¹, 임영옥², 박종연³, 최우혁⁴, 권경숙⁴, 김명현⁴

¹*Dept. of Preventive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Yonsei Univ.*

²*Dept. of Environmental Health, Seonam Univ*

³*Dept.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Health Science and management, Yonsei Univ*

⁴*Institute for Environmental Research, Yonsei Univ*

환경문제와 관련된 위해도 인식과 정부규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일반인, 환경전문가, 공무원, 언론인 그리고 사회단체의 5개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2000년 3월부터 4월에 걸쳐 30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총 1803부를 회수하였다(회수율 60.1%).

설문조사 내용은 환경문제가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위해도에 대한 인식, 환경문제를 개선 및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규제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그리고 정부의 환경오염개선 및 보전을 위한 노력 정도, 환경오염개선을 위한 규제, 기업체에서의 환경관리의 노력정도에 대한 사회집단의 인식차이 등의 내용을 조사하였고, 조사결과의 해석을 위한 척도는 1점에서 7점 척도로 구성하였고, 높은 척도일수록 부정적인 응답으로 되도록 하였다.

각 사회집단의 위해도 인식과 정부의 규제필요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환경문제를 분류하여 각 사회집단별로 위해도 인식의 평균값을 각각 가로와 세로축으로 하여 위해도 인식과 정부규제의 필요성 인식 점수를 교차시킨 지도(perception map)를 만들어 중요한 환경문제들의 분류를 시도하였다. 위해도가 심각하게 인식되면서 동시에 정부의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된 문제들은 A군, 위해도가 기준이상으로 심각하게 인식되면서 정부규제의 필요성은 기준이하로 인식되는 문제들은 B군, 위해도가 심각하지 않게 인식되면서 동시에 정부의 엄격한 규제가 필요 없다고 인식된 문제들은 C군, 마지막으로 위해도는 기준이하로 인식되면서 정부의 규제 필요성이 기준이상으로 인식되는 문제들은 D군으로 분류하였다.

조사 결과 각 사회집단의 환경문제에 대한 위해도 인식의 전체 평균값에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 < 0.0001$), 사회단체는 5.87, 언론인은 5.55, 전문가는 5.31, 그리고 일반인은 5.53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회단체의 경우 환경문제의 위해성을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인식하는 반면에 공무원은 가장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문제별 위해도 인식과 정부의 규제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의 관련성은 비교적 강한 양의 상관관계($r=0.71$, $p=0.0001$)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자동차 배기가스'와 '공단의 대기오염배출물질'이 각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A군으로 분류가 되어졌다. 본 연구에서도 출된 위해 관련 오염원들에 대한 각 사회집단별 인식도는 그 우선순위에 따라 향후 규제와 관련된 정책 결정의 최우선적인 과제로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되어진다.

<책임연구자>

성 명: 신 동 천

주 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종합관 630호 환경공해연구소

연락처: 전화 (02-361-5361), 팩스 (02-392-0239), E-mail (dshin5@yumc.yonsei.ac.kr)